대통령직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4.(목) 15:30 배포 2025. 9. 4.(목) 15:30

농특위, 농정대전환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

- 한종협과 간담회 개최해 농정과 농특위를 향한 현장 농업인 의견 청취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'농특위')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(수)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, 새 정부 농업·농촌 분야 국정과제 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.

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(이하 '한종협')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,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, 전병설 한국4-H중앙본부 회장, 류진호 한국4-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,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.

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▲'식량안보'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▲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▲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▲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▲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.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▲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▲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.

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"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"이라며 "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'식량안보' 예산"임을 강조했다.

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"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"과 "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실행력 강화"를 요청했다.

류진호 한국4-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은 “선배 농업인이 행복해야 그 모습을 보고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할 것”이라며 “청년농업인뿐 아니라 농업인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”고 제안했다.

김호 위원장은 “농특위가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로서,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정 정책 실행력 또한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농특위는 앞으로도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며, 임업, 수산업 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농어업정책팀	책임자	팀 장	이은영 (02-6260-1251)
		담당자	전문관	오은주 (02-6260-123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